

일어일문관련학과의 현행 교과과정과 개선안

문 명 재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에서 일어일문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61년 한국외국어대에 일본어과가 개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국제대학에도 일어일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19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973년에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 과목이 도입되면서 다른 주요 외국어와 함께 일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일어일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였고, 당시의 주된 필요성에 응하다보니 주로 일본어교육에 치우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3년에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 석사과정인 개설되면서 일어일문학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인력을 배출

할 수 있게 되고, 전국 각지의 대학과 전문대학에 일어일문관련학과가 앞다투어 설치됨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전까지의 일본어교육을 주로 해오던 경향에서 일어일문학 및 일본학과 관련된 교육이 새롭게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에 상응하는 비중이 두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유학한 연구·교육인력들이 돌아옴으로써 점차 국내에서도 학문적인 성과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바람은 각 대학의 일어일문관련 교과과정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돌아보면, 대학에서 일어일문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된 지는 이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초창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3년 현재 110개 대학교(각 산업대학 및 사관학교는 제외)와 95개의 전문대학, 971개 고

등학교(전수학교 포함)에서 일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일본(어) 관계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수만 해도 각각 55개교(62개 학과)와 50개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¹⁾

이와 같이 일어일문에 관련된 교육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아니 이보다 빠른 속도로 주위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어닥친 국제화·세계화의 바람은 외국어문학과 관련된 분야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일어일문학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현행 일어일문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교과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2. 일어일문관련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외국어문학과관련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은 교육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학문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의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일어일문관련 학과에 지원·재학하는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거쳐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졸업후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수적으로 보면,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과과정에서 학문적인 측면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으로 창출

되는 효용은 가시적이고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고 선호되기 쉽지만, 넓은 시야에서 보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사회 전반에 제공하는 효용 또한 사회활동으로 창출되는 효용에 못지 않게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효용면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학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어문학의 실용성을 강조한 교육에 치중하다보면 일종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학이란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학문적인 측면의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은 실용성에 못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의 교육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실용성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은 시대적인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가능한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러면 현행 교과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각 대학의 일어일문관련학과의 명칭을 보면, 가장 많은 일어일문학과를 비롯하여 일본어과, 일어교육과, 일본어학과, 일본어교육과, 일본학과, 일본어교육학과, 일어과, 일어학과, 일어일본학과, 일어일문과, 일본문예학과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은 크게 묶어보면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학과, 일어교육과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원래는 각 학과의 교육목표와 성격을 반영하여 명명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분류에 의해 이들 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을

1) 『韓國의 日本語教育實態－日本語教育機關調査 1993~1994』(韓國日語日文學會, 1994.9)

〈표 1〉 일어일문관련학과의 학과명과 해당대학

학 과 명	대	학
일어일문학과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관동대 목포대 부산대 군산대 단국대(서울)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여대 상명여대(천안) 서경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순천대 울산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우석대 제주대 중앙대(서울)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한남대 한양대 효성여대	(43개교)
일본어과	대전산업대 부산공대 부산외대 선문대 수원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안성)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용인) 한서대 경주대 광주대	(13개교)
일본학과	계명대 한림대	(2개교)
일어교육과	전국대 경남대 경상대 부산여대 상명여대(서울)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8개교)

- * 계명대에는 일어일문학과와 일본학과와 2개과가, 부산여대에는 일어일문학과와 일어교육과의 2개과가 설치되어 있음.
- * 명지대는 일본문예학과이나 일어일문학과에 포함시켰음.
- * 인하대는 일어일본학과이나 일본어과에 포함시켰음.
- * 경주대의 관광일어과와 광주대의 관광통역학과는 일본어과에 포함시켰음.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표 1〉과 같다.

일어일문관련학과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과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는 각 대학의 학과마다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실제 행해지고 있는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원래의 목표에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우선 각 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을 조사하여 이들 교과목이 지향하는 바의 성격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① 일본어 습득과목
- ② 일본문학 전공과목
- ③ 일본어학 전공과목
- ④ 일본지역학 전공과목
- ⑤ 일본어교육 전공과목

이 가운데 일본어 습득과목의 지향하는 바는 실용적 측면의 요구충족이 되겠고 나머지 네 분야의 전공과목은 학문적 측면의 요구충족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학문적 측면의 요구충족을 위한 분야의 공부에서도 일본어 습득과목은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

적이라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용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어 습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어 습득과목은 위의 두 가지 교육목표에 모두 필요한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 습득과목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큰 비중이 두어져 왔고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짐이 없다. 그리고 필자 또한 일본어 습득과목의 비중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문제는 주어진 교육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어 습득과목과 그 외의 전공과목 간의 비율조정과 위에 든 네 가지 전공과목간의 비율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는 점이고, 이 글도 이러한 시점에서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대학의 현행 교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학과명 분야별로 국내의 일어일문관련학과 가운데 비교적 주요대학으로 여겨지는 표본으로서 일어일문학과 분야에 A·B·C의 3개

〈표 2〉 9개 대학의 교과목 분류표

구분	A대	B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I대	
일 문 어 학	강독(초급)	1-1·2*	1-1*	1-1*	1-1·2*	1-1·2*	2-1*	1-1·2*	1-1·2*	1-1*
	강독(중급)	2-1*·2	1-2*	1-2*	2-1·2*	2-1·2*	2-1	2-1·2*	2-1·2*	2-1·2*
	강독(고급)		2-1·2*	2-1·2*	3-1·2				3-1·2*	
	작문(초급)	2-1	2-2*	2-1·2	2-1·2*	2-1·2*	2-1·2	2-2		3-1*
	작문(중급)	2-1	3-1*	3-1·2	3-1·2	3-1·2	3-2		4-1·2	3-2*
	회화(초급)	3-1	1-1	2-1·2	1-1·2*	1-1·2*	2-1*·2	1-1·2	1-2*	1-2*
	회화(중급)	2-1	2-1	3-1·2	2-1	2-1·2*	3-1	2-2*	2-1·2	2-1·2*
	회화(고급)	2-2		4-1	2-2	3-1·2*	3-2	3-2*	3-1	3-1*
	언어실습 I	3-1	1-2	2-1·2*	1-1·2*	1-1·2*		2-1	1-1*	
	언어실습 II				2-1·2	2-1·2*		2-2		
	시사일어	2-1	3-1	2-2	2·3-2	3-1		3-1, 4-2	2-2	4-1
	실용일어		4-1·2	3·4-2	4-1				4-1·2	
한문		4-2		3-1		4-2	4-2			
기타			2-1	1·2·3-1						
일 문 학	일문학개론	2-2*	2-2	3-2	2-2	4-1				
	일문학사	4-1	3-2*	3-1·2*	3-1*	3-1·2		3-1	4-1·2	
	고전문학	3-1*·2	3-2, 4-1	4-1	4-1			3-2, 4-1	3-1·2	
	일운문문학	4-1		4-1		4-2			4-1	
	일현대시	3-2	3-1	4-2					4-1	
	근현대소설	3-1*·2	2-1·2		4-2			4-1	3-1·2	
	일문학연습		3-2*	4-1·2					3-1	
	일문학특강	4-2							4-2	
	일회곡	3-1	3-1							
	일수필	3-2	4-1				3-1			
기타	1·4*-1	4-1·2		3-1·2	3-2					
일 어 학	일어학개론	2-2*	3-2	3-1*	3-1*	3-1		2-1	3-1	
	일문법 I	2-1*	2-1*	2-1	1-2	2-1*	2-1		2-1*	
	일문법 II	3-1		4-1		2-2*	2-2		2-2*	
	문어문법	3-2*	3-1*	3-2		3-1				
	일음성학	3-2*	3-2	3-1	3-2*	4-2			3-2*	
	일어회론	4-1				4-1			3-1	
	일어학사	4-1		3-2		3-2				
	일어학특강	4-2		4-2	4-2					
	기타	1-2*	4-2	4-1*	3-2	3-2			3-2	
			4-2*	4-2				4-1·2		
일 본 학	일본사정	2-2	2-2		4-2		3-1*	3-1	2-1	
	일본사 I						2-2*	4-1		
	일본사 II						3-1*	4-2		
	일문화사		2-1		1-2	2-1·2*		3-1		
	일사상사				4-1	4-2	4-1*	4-1·2		
	일정치					3-2	3-2*	2-1		
	일경제					4-2	3-2	3-2		
	한일관계사					3-2		2·3-1*		
	민속·문화			3-1			3·4-2	3-2		
기타					4-1	2-1*				
						3-1				
일 교 육	일어과교육론				3-1					
	교재연구 및 지도				3-2				3-2*	
	세미나				4-1*					

· 숫자는 학년과 학기, *표시는 필수과목임을 나타냄.

〈표 3〉 분류 교과목의 필수·선택 학점수

구	분	A대	B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I대
일본어	필수	13	18	13	21	38	6	15	22	21
	선택	24	21	31	56	9	24	24	22	3
	합계	37	39	44	77	47	30	39	44	24
일문학	필수	15	6	6	3	0	0	0	0	0
	선택	24	33	18	15	15	3	12	21	24
	합계	39	39	24	18	15	3	12	21	24
일어학	필수	15	6	9	6	2	0	0	6	9
	선택	12	9	18	12	16	6	3	3	12
	합계	27	15	27	18	18	6	3	9	21
일본학	필수	0	0	0	0	4	18	6	0	6
	선택	3	6	3	9	13	12	27	3	3
	합계	3	6	3	9	17	30	33	3	9
일교육	필수	0	0	0	3	0	0	0	2	0
	선택	0	0	0	4	0	0	0	0	0
	합계	0	0	0	7	0	0	0	2	0

교, 일본어과 분야에 D·E의 2개교, 일본학과 분야에 F·G의 2개교, 일어교육과 분야에 H·I의 2개교 등 모두 9개교를 임의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하였다(앞의 〈표 2〉 참조).

이를 다시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분류하여 각 과에 대한 학점을 수치로 나타내면 위의 〈표 3〉과 같다.

〈표 2〉와 〈표 3〉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교과목의 분류 및 학점 배당에서 각 대학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과명은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학과, 일어교육과로 분류되지만, 위의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본학과 분야의 경우에만 학과 명칭에 상응한 교과과정의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분야의 학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전반적으로 일본어 습득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분야 과목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전체 교과목의 1/2 이상의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나머지 네 분

야의 교과목과 비교해 보면 아직 일본어 습득 과목이 열세로 보이고, 이 분야의 과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③ 일본학 분야 이외의 학과를 보면 E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경우, 일본학 분야의 교과목이 현저하게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④ 교과목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수할 과목과 나중에 이수할 과목의 순서가 바뀌어 학습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교과과정의 단절로 인한 계속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면 B대의 일문학 분야의 경우, 3학년 2학기에 중세·근세문학과 같이 세분화된 과목을 개설하고 보다 포괄적인 고전문학 과목을 4학년 1학기에 다루고 있는데, 이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D대의 경우, 일고전강독(4학년 1학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학과목에 문어문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대의 경우는 일본사(4학년 1·2학기)가 기본과목이라 여겨지는데 다른 과목보다 뒤에 개설되어 있고, 일회화는 1학년 1·2학기에 있

고 2학년 1학기과 3학년 1학기에는 없다가 2학년 2학기과 3학년 2학기에 다시 개설되어 과정의 단절에 의한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H대의 경우도 4학년 1·2학기의 일본학사 과목은 기본이 되므로 더욱 앞당겨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⑤ 일본어 습득과목 중 일회화가 4학년까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C대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실용성을 기대하는 4학년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4학년 과목 중에 일본어 습득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두 학교(A·E대)나 되고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빈약한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실용성을 기대하는 4학년 학생들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⑥ 고학년에 개설할 일본어 습득과목은 단순한 강독류의 성격을 벗어나서 다른 전공분야의 학습을 겸할 수 있는 이중적 과목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원서교재에 의한 일본학 분야의 강의(일본어습득+일본학), 시사일어(일본어습득+일본학), 일본소설강독(일본어습득+문학) 등 교재선택과 교수법에 의해 실현 가능하다.

⑦ 전체 교과목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E대의 경우는 학과의 명칭이 일본어과인 만큼 일본어습득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문학·어학·일본학 등에 고른 과목개설과 학점이 배정되어 있어 비교적 균형있는 교과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3·4학년의 경우, 실용적인 일본어 습득과목이 미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⑧ 일본학계열인 F대의 경우는 교과과정에 학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일본학과도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어학 전공과목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고, 이 점

에서는 같은 일본학계열의 G대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F대와 G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H대와 I대의 경우를 보면 I대는 교육계열이면서 일교육 관련과목이 한 과목도 없고, 마찬가지로 H대도 역시 일본어과인 O대보다 오히려 일교육 관련과목이 적어 학과의 명칭이 무색하다. 다만 어학과목 중에서는 일본법을 중시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학과의 성격과도 관련된 일어교육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생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3. 맺음말

전국의 일어일본학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조사하면서 떠오른 문제점들은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오히려 지엽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교과과정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지만, 이제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획일적인 교과과정에서 탈피하려는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 첫째는 일어일본학관련학과의 교과과정 가운데 지역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는 사실과 이를 반영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학·문학·지역학 등으로 특화 발전시키는 것도 각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학부과정에서의 교육은 보다 포괄적이고 상호 관련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실시예정으로 발표되었고 다른 대학들도 전반적으로 추세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전공 필수학점의 축소와 이에 부수되

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도의 활성화라는 변화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교과과정의 재편성에 대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위의 개선방향 ⑥에서 잠깐 지적했지만, 일본어 습득과목과 전공과목 양 분야의 학습을 결합할 수 있는 이중적 과목뿐만 아니라 어학·문학·지역학 등 전공과목간에도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교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공필수학점의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을 큰 충격 없이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바를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수년 전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 일부에서 입시과목 중 일본어를 배제한 일이 있었다.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국제화시대에 반하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일본알기를 소홀히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을 때, 당시 일본의 신문지상에서는 일본의

국·공립대학들 가운데 한국관련강좌의 증가를 보도하고 있었다. 냉철히 비교해 보면, 현재 한·일 양국간에 일본의 한국연구와 한국의 일본연구를 양적 질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이 우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을 더 많이 아는 일본은 한국을 더 연구하고,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은 일본알기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광복 50주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바람직한 양국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가장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과 교육자, 정부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문명재/한국외대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 고베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인하대 강사를 거쳐 현재 한국외대 일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続古事談 注解』(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 “한·일 설화문학의 비교연구시론”, “今昔物語集の孝養譚考”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